

오순절 후 열아홉 번째 / 세계 성찬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9<sup>TH</sup>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1년 10월 3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50장 “큰 영화로신 주” (새 3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0 번 이사야 (Isaiah) 58 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1:23-32	김숙희 집사
찬 양 Anthem	“크신 은혜”	찬양대
설 교 Sermon	“ <b>성례전적인 삶을 실천하십시오</b> ” (Practice Living Sacramentally)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주의 만찬 Communion	“흠어져 나누는 주의 만찬”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285 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나” (새 228)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차지 않는다”며,

우리의 죄악과 완악함을 경고하셨지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분주했고,

우리의 마음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어리석게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실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 11:17)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한글개역 **고전 11:26**)

“For whenever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NIV **1 Corinthians 11:26**)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0/3 (주일)	10/4 (월)	10/5 (화)	10/6 (수)	10/7 (목)	10/8 (금)	10/9 (토)
왕상	왕상6	왕상7	왕상8	왕상9	왕상10	왕상11	왕상12
엡	엡3	엡4	엡5	엡6	빌1	빌2	빌3
겔	겔36	겔37	겔38	겔39	겔40	겔41	겔42
시	시86	시87,88	시89	시90	시91	시92,93	시94

수/요/성경/공부 토/요/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10/6 오후7:30)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삿1:19-21, 26-10)
토요 새벽기도회 (10/9 오전6:30)	“나를 구원하시고 판단하소서” (시54:1-7)

지난 주일(9/26) 말씀

전도의 8가지 습관 (1) – “복음에 참여하는 예배”(고전 9:19-23)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Evangelism)는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가득 차 올라서, 이것이 우리의 일상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기에, '전도훈련' 보다도, (먼저는) '신앙훈련'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전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 역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한) 다른 나라, 타문화권에서 선교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전도'를 가리켜, “복음에 참여(참여)한다”(고전9:23)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서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복음에 사로잡힌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부러진 가지가 새로운 나무에 접붙임되어 그 일부가 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됩니다(고전9:19). 그래서,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화석화된 생명 없는 예배가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며, 복음에 사로잡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